

광주시, 네팔에 지사체 첫 긴급 구호대 파견

(사)희망나무·조선대병원 의료진 등 10명 구성

전남도 산하 공직자 4000여명 성금모금 운동도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했다.

광주시는 28일 “윤정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지진 피해를 본 네팔에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회’(이하 광주구호협회)”를 통해 긴급 구호대를 보내기로 하고 이날 선발대 10명을 현지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재난·재해 현장에 정부 차원의 구호대가 파견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호대 파견은 처음이다.

선발대는 광주 구호협회에 참여단체로 구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희망나무와

조선대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희망나무 이사를 맡고 있는 서정성 아인안과 원장과 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조수형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유영선 외과 교수, 김홍희 정형외과 교수, 간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선대 병원 측은 (사)희망나무와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회에 요청에 따라 지진 피해의 경우 외상 환자가 많은 만큼 응급의학과 및 외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 정에 의료진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문경래 병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의료 손길이 절박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최선을

을 다해 봉사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봉사단원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을 경유해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들어가 외상 환자 중심의 긴급 의료 지원과 이재민 의식주 지원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 구호협회는 또 현지 피해 상황과 의료지원 현황, 구호 활동 등을 검토해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구호단 본진은 5월 초순에 파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민관 모금활동을 전개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구호물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아시아의 어려움에 즉각 응답하는 것이 곧 ‘광주정신’이라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네팔의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한 기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성금모금 운동에 나선다. 성금 모금은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도 산하 4000여 공직자가 참여한다.

모아진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해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국민의 이재민 구호와 시설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등 국가재난 발생때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정성을 모아 힘을 보태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네팔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전남도 공직자의 작은 정성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韓赤 네팔 지진구호 대장 임명 산악인 엄홍길씨 “나눔정신으로 네팔 성원해달라”



진 때문에 산전이 올부짓는 참혹한 상황으로 변했다”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히말라야를 오르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 앞에서 나약하다는 것을 수없이 느꼈다”면서도 “하늘도 땅도, 히말라야의 신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네팔 현장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엄 대장은 29일 새벽 출국한다. 엄 대장은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주했고, 2007년에는 히말라야 로체 사르까지 오르면서 세계 최초로 16좌 완주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네팔 지진 구호를 위해 출국하는 산악인 엄홍길(55) 대장은 28일 “힘들고 어려운 때인 만큼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네팔을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네팔 지진 긴급구호 선발대장으로 임명된 엄 대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네팔이 한시라도 빨리 아름다운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국민도 마음을 보탤이면 좋겠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엄 대장은 적십자사 직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선발대를 이끌고 네팔 지진 현장에서 피해 상황 조사 및 구호와 긴급의료단 진료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엄 대장은 네팔 지진에 대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네팔이, 신들이 거주한다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히말라야가 지



여진 속 목숨 건 생필품 찾기 28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인근 박타푸르 지역에 주민들이 언제 무너질 지 모를 건물 옆에서 생필품을 찾고 있다. 지난 25일 이곳 카트만두 북서쪽에서는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완, 네팔 희생자 추모·복구지원 결의안 발의



고통을 분담하고 한국-네팔 간 우호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결의안을 만든 것”이라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네팔 국민의 아픔은 계속 되겠지만 지혜롭고 용감하게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면서 “조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카만 시 라마 주한 네팔대사와 협의해 국회 차원의 도외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네팔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 의원이 28일 ‘네팔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네팔공화국의 피해에 대해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나아가 네팔공화국의 피해복구 및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안전 확보와 무사 복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계속되는 여진과 산사태로 도로와 통신망이 붕괴돼 국제사회 도움 없이는 희생이 불가한 네팔공화국 정부의

네팔 사망자 4천명 넘어서...총리 “1만명 될 수도”

세계 각국 구조 동참

네팔 대지진 발생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4000명을 훌쩍 넘어 빠르게 늘고 있다.

생존자 인명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지진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군 병력까지 총동원한 필사의 구조 작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네팔 정부조차 사망자가 최대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을 내놓

는 형편이다.

AP 통신은 28일 네팔 경찰을 인용해 네팔에서만 희생자 435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8063명으로 집계됐다. 인도에서 최소 61명에서 최대 72명이, 중국에서 25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전해져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4500명에 육박한다.

수십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전시 체제

로 돌입해 구조와 구호를 위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색 작업이 수도 카트만두 외에 시골 마을로 확대되면 역설적으로 사상자 통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 사회의 지원 손길이 바빠지는 모습이다. 네팔에 100만 달러의 긴급 구호자금을

보낸 미국은 9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1천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구조요원과 구호품을 실은 두 대의 공군 수송기를 투입했다. 지진 당시 네팔에서 합동훈련 중이던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요원 26명도 그대로 남아 에베레스트 등 산악 지역에서 구조 작업에 동참키로 했다.

영국은 네팔 출신 구르카 용병 수십명을 공군으로 보내 구조 작업을 돕도록 하는 한편 대형 수송기를 통해 1천개 이상의 구조 키트를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로부터 구조대원과 의료·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정황을 담은 메모(‘성완중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치인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의 첫 수사 타깃으로 주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지사 측 일직 담당 비서 각 1명을 2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검찰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 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싸여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일직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떤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한국농어민신문

전남취재본부 인턴기자 채용공고

1. 채용 분야
 - 전남 취재본부 인턴기자
2. 채용 인원
 - 인턴기자 1명
3. 자격 기준
 - 광주, 전남 출신으로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인턴요건을 충족한 자
4. 채용형태 및 급여
 - 채용형태: 인턴기자 6개월, 근무성적 양호할 경우 계약직 근무 가능. 계약직 근무성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함.
 - 급여: 인턴기자 -160만원, 계약직 근무 - 2400만원 이내(연봉기준)
5. 제출 서류 및 기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최종 졸업학교)
 - 이력서, 자기소개서
 - 2015년 5월 14일(목) 18:00까지
6. 제출 방법
 - 우편, 이메일, 본사방문 직접 접수
7. 제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경영기획실(02-3434-9000)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3F
 - 담당 : 마두환 경영기획실장
 - 홈페이지 http://agrinet.co.kr
 - E-mail : madh83@naver.com
8. 회사 소개
 - 한국농어민신문은 35년의 역사와 발행부수 12만부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전문 언론지입니다.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기자들이 밤 흘리며, 300만 농업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